

지역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 기획단으로 참여한 신희홍-이순화씨와 양경모 참여작가 (왼쪽부터). 이음갤러리에서 열린 '4월, 예술날개' 행사 모습.



창의성에 날개를 달아...장애·비장애 틀 깨고 예술 공유

시각장애인 양경모 작가는 지난 5일 색다른 경험을 했다. 하늘, 빛, 구름을 소재로 희망을 담은 다채로운 작업을 하고 있는 그가 오랫동안 사람들과 소통해 온 건 그림을 통해서였지만 이번에는 '교육'을 통해 사람들을 만났다. 장애인 작품 전용 공간인 이음갤러리 전시실에 걸린 자신의 작품을 직접 소개하고, 이어 가족 단위 참가자들과 함께 칠수, 면봉 등의 오브제를 활용해 자신만의 '하늘'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었다.

양 작가는 6일에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강상수씨와 관객들이 함께하는 '강상수의 음악 이야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버클리음대에서 수학한 강씨의 연주를 듣고 함께 피로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기획이었다.

"개인 작업에서 벗어나 일반 가족 참가자를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는 게 의미있었어요. 참가자들이 의외로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멋진 작품을 만들어 뿌듯하기도 했어요. 또 다른 장르 예술인들과 협업을 해 본 것도 드문 기회였는데 음악, 미술,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관객과 예술가가 하나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양 작가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준 프로그램은 장애인 날(4월20일)을 맞아 열린 '4월, 예술날개'였다. 장애와 비장애의 틀을 깨고 예술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장애인 예술가들의 장려간 교류가 의미있는 행사였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장애인 예술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공연으로 만나는 예술날개, 찾아가는 창작 워크숍 예술날개, 이야기로 만나는 예술날개 등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됐다.

4월, 예술날개'는 광주문화재단의 '지역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 일환이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은 재단은 첫 해 사업으로 장애인문화예술공간 이음갤러리와 창작스튜디오 운영, 문화예술 실태조사, 장애인문화예술네트워크 구축 등을 진행했다.

광주교 인근에 지난해 문을 연 이음갤러리는 장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48평의 규모의 갤러리에서는 박영실-이정자-조규열 작가 등의 개인전이 열렸고, 다양한 문화행사도 이어졌다. 이번 사업에는 문화콘텐츠그룹 '잇다' 이순화 대표, 신희홍 태이움작업교육연구소 대표, 양정인 연극연출가 등이 기획단으로 참여해 힘을 보탤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간들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또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예술인들이

광주문화재단 '4월, 예술날개' 진행 이음갤러리서 전시·창작 워크숍 장애인예술인들 장려간 교류 필요 "예술공간 쿼터제 마련해야"

많은 것도 알게됐구요. 자신의 분야에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건 물론이고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능숙히 진행하는 걸 발견할 수 있었죠. 참여자들의 장애 유형이 다양하다보니 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더 활발한 문화 활동이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순화 대표는 "장애인 예술행사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예술공간 쿼터제 등이 마련되면 좋겠다"며 "무엇보다 장애·비장애 예술인들이 서로 경계 없이 교류하는 프로젝트들이 더 많아지고, 장애인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장르를 넘나드는 협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술날개'는 배리어 프리 낭독극 '무지개 넘어', 배리어 프리 전시 '예술가의 도구', 감각으로 소통하는 '몸의 대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또 장애인 대상 제빵·제과 직업재활센터인

티움복지재단을 직접 찾아가 '삶은 예술이야'를 주제로 김옥진 작가와 함께 직접 머그컵을 만들어보는 체험도 진행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당사들도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전해주고 싶었어요. 좀 더 전문적인 예술경험을 하고 싶은 이들에게 저희가 그 통로와 연결고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참여한 장애인 예술가들이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자신의 창작 세계를 확장해가는 기회도 됐다고 생각해요."

신희홍 대표는 "무엇보다 장애인 예술인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 자신이 자극을 많이 받았고 저의 창작 세계도 조금 더 넓어진 것 같다"며 "장애와 비장애 예술가들이 만나는 장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단은 올해 진행되는 2년차 사업에서는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중단하는 대신 이음갤러리 활성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장애인작가들의 전시를 꾸준히 진행하는 한편 다양한 예술활동이 펼쳐지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하고 갤러리에 작가 레지던스도 운영할 생각이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교류의 장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유튜브로 만나는 생생한 국악무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시립창극단

광주문화예술회관(성현출관장)은 1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광주시립창극단의 공연을 생중계한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은 최민정 상임단원이 진행과 해설을 맡는다. 첫 번째 곡은 해금의 매력을 엿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다. 김민희(해금)·김나영(대금) 단원과 문경미(신디) 객원연주자가 함께한다.

두 번째 곡은 거문고와 플루트를 위한 2중주 '역동'으로 유소희 수석단원과 광주시립교향악단 박소현 차석단원이 아름다운 앙상블을 선보인다. 해금과 기타를 위한 '바람이 전하는 말' (해금 박남현·기타 박관능)과 '천개의 바람이 되어' (해금 김선임, 신디 문경미, 첼로 최승욱, 노래 이은비)를 각각 이어서 연주한다.

광주시립창극단은 3시 이장주 차석단원의 사회로 공연을 시작한다. 첫 무대 판소리에서는 '심청가' 중 '타루비 대목' (소리 김연옥, 고수 이명식)을 들려준다. 이어서 창작무용 '염원' (무용 한명선, 거문고 김태래, 장구 이명식)이 펼쳐진다. 공연의 대미는 '우도농악 설장구' (설장구 정지하-전미희)로 장식한다. '설장구'는 장구 기량을 연주하며 발림과 춤사위를 곁들여 노는 개인 놀이 중 하나이다. /전재제 기자 ej6621@kwangju.co.kr

e나라도움 사용자 대상

29일까지 온라인 라이브 특강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교육 실시가 불가능한 국고보조금을 받는 문화단체나 문화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라이브 특강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강이다. 보조사업자 대상과 상위보조사업자 대상 교육과정으로 나눠 진행되며 각 단계에 따른 과정이 상세하게 다뤄진다. 신청·교부과정, 집행 기초 과정, 정산 기초 과정, 집행 심화과정, 업무대행자 신청·교부 과정 등 실질적인 내용 위주로 돼 있다.

교육 시간은 오전 9시30분-11시 30분, 오후 2시-4시까지로 유튜브를 활용한 교육이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는다. 실시간 방송 종료 후 해당 강의는 녹화 제공되지 않으며 출석인정이나 수료증 발급도 하지 않는다.

수강 방법은 PCL나 모바일을 이용해 유튜브 채널(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동하거나 유튜브 접속 후 '국고보조금' 검색 후 채널 접속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불완전한 풍경에 대하여'

설박 개인전, 28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설박 작가의 작품은 흑과 백의 수묵이 갖는 매력을 잘 보여준다.

전통 수묵화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먹의 번짐과 함께 먹물이 갖든 한지를 찢어 붙이는 콜라주 등 현대적 기법 등을 결합한 그녀의 작품은 한국화의 새롭고 창조적인 변용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좌표다. 특히 그녀가 만들어내는 산수 등 풍경화는 동양적 정서의 신비로운 감성을 느끼게 해준다.

설박 작가 개인전이 오는 28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광주시 남구 양림동 225-25)에서 열린다.

'불완전한 풍경에 대하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적 산수화가 담고 있는 의미를 평면 작품으로 묘사하던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공간에 풀어놓은 설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전시회가 열리는 아트폴리곤이 기존의 화이트 큐브 갤러리가 아닌, 세월의 흔적이 묻은 흥미로운 장소여서 작품과 공간이 함께 만들어내는 독특한 풍경도 만나볼 수 있다.

5m에 이르는 설치 작품 '산수, 수'는 전통과 현대가 혼재되어 탄생한 불완전한 풍경이다. 먹의 농담을 살린, 거칠게 오린 화선지 조각을 이어 붙이며 차곡차곡 자연의 산세를 쌓아간 작품은 자유



'산수, 수'

롭게 펼쳐진 광복전과 어우러지며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설박 작가는 광주시

립미술관 북경장학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으며 중국, 서울 등에서 8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벤들리관광호텔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